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1-29>

2001. 7. 20

KIEP 북경사무소

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

1. 개요

□ 지난 7월 13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중국 베이징이 2008년도 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선정됨.

- 올림픽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행사라는 본연의 의미 외에 국가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.

□ 중국 정부는 올림픽 관련 직·간접적인 시설 건설에 총 23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바, 이에 따른 성장률 제고 등 직접적인 경제성장 유발 효과가 기대됨.

- 올림픽은 향후 7년간 중국경제 성장률을 매년 0.1% 포인트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.

o WTO 가입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1~2%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면, 올림픽은 소폭의 추가적인 성장 요인이 될 것임.

□ 그러나 중국의 올림픽 유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됨.

- 즉 중국제품에 대한 PR 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제 효과와 사회적 효과(외국인의 대중국 인식 전환, 전세계 중국인의 일체감 강화) 등은 중국이 21세기 명실상부한 정치·경제적인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.

2. 베이징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

가. 직접적인 효과

□ 중국 정부는 올림픽 시설, SOC 건설, 환경 보호 등에 총 23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.

- ▲올림픽 경기장: 20억 달러, ▲SOC 투자: 108억 달러, ▲환경보호: 54억 달러, ▲정보·통신: 36억 달러, ▲주민편의 시설: 18억 달러

○ 지난 90년대 중반 시작된 중국 최대의 토목공사인 삼협댐의 총 투자비용이 300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올림픽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음.

-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해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할 방침임.

○ 외국 기업 또한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바 이미 모토롤라, GM 등이 스폰서 계약을 준비중이고, TV 중계권(50억 달러 예상)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.

○ 한국의 삼성은 이미 공식 후원기업에 포함되어 있음.

□ 올림픽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0.1%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.

- 올림픽이 GDP를 0.3%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(Goldman Sacks)도 있으나, 이보다는 0.1~0.05%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(J. P. Morgan, Saloman Smith Barney)

○ J. P. Morgan은 관광수입 증가가 0.02%포인트, 투자의 유발효과가 0.03%포인트로 총 0.05%포인트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.

○ 실제 투자금액에 비해 GDP 증가 효과가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SOC 투자의 상당부분이 산업생산과 무관한 베이징 및 인근 지역의 환경보호(화석 연료 대체 및 사막화 방지 등)에 투입되기 때문임.

□ WTO 가입이 중국 경제를 1~2%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는 세계은행 예측을

감안하면, 올림픽은 추가적인 소폭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- WTO 가입과 올림픽을 감안한 중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음.

	단위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
GDP증가율	%	7.6	7.1	6.8	6.7	7.0	7.9	8.2	7.3
1인당 GDP	달러	935	1,025	1,016	1,057	1,166	1,290	1,423	1,550

자료: DRI 데이터 이용, KIEP 추정.

나. 간접적인 효과

□ 올림픽 개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다는 것임.

- 이는 한국이 88올림픽에서 경험하였듯이 아직까지 중국을 공산주의, 폐쇄사회로 인식하고 있고, 중국 상품을 단순히 저가제품으로 이해하는 서방국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임.

- 또한 내수 소비의 활성화가 기대됨. 2008년에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인바, 그 동안 억제되었던 국내 소비가 올림픽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.

○ 2008년의 1인당 GDP는 2000년에 비해 80%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. 작년도 북경, 상해 등 연해지역 대도시의 1인당 GDP가 전체 평균의 2~5배인 점을 감안하면 2008년도 중국 대도시의 1인당 GDP는 4,000~8,000 달러 수준에 달할 것임.

-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(화교)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일체감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음.

3. 올림픽이 거시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

□ 올림픽은 WTO 가입에 따른 경제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.

- 중국 정부는 올림픽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일부의 저항을 쉽게 무마시킬 수 있을 것임.

□ 그러나 특정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유발하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중국정부가 앞으로 경계해야 할 측면임.

- 최근 수년간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중국 정부는 적자재정 상태에 있는바, 신규 채권 발행을 통한 SOC 건설은 향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음.

○ 또한 올림픽행사가 당초 예상보다 투입자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선례에 비추어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음(시드니올림픽 관계자의 발언).

□ 따라서 중국 정부는 다른 지역, 예컨대 서부지역 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베이징 지역으로 전환하거나, 통화 발행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.

-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1% 수준이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3%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, 올림픽 개최에 따른 예기치 않은 통화량의 증대가 물가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음.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중국 상반기 GDP 7.9% 성장

- 중국의 금년 상반기 GDP가 전년동기대비 7.9% 증가한 42,942억 원을 기록
 - 1차 산업의 증가액은 2.4% 증가한 4,516억 원, 하곡생산량은 4.6% 감소한 10,188만톤
 - 2차 산업의 증가액은 9.7% 증가한 23,551억 원
 - 3차 산업의 증가액은 7.0% 증가한 14,876억 원
- 상반기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의 주요 추진력으로 작용

- 전사회고정자산투자액은 15.1% 증가한 11,899억 원
 -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10.3% 증가한 17,915억 원
 - 소비자물가 1.1% 상승
 - 도농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.5% 증가한 3,424원, 농촌주민의 1인당 평균 현금수입은 4.2% 증가한 1,063원
-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저조 영향으로 교역액은 11.3% 증가한 2,410억 달러로 증가율이 전년대비 26% 포인트 하락함.
- 수출은 8.8% 증가한 1,246억 달러, 수입은 14% 증가한 1,164억 달러, 무역흑자는 81억 달러
 - 반면 상반기 외자이용액이 뚜렷하게 회복하여 실질 이용액이 20.5% 증가한 206.9억 달러였음.
- 상반기 경제운영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구조가 약간의 개선을 보였음.
- 1-5월 공업기업의 이윤실현액은 30.4% 증가한 1,670억 원, 그중 국유 및 국유 지배주주기업의 이윤실현액은 31.5% 증가한 905억 원, 적자기업의 적자액은 10.4% 감소한 546억 원
 - 석탄, 야금, 전자재, 석유화학 등 중점 업종은 정부의 총량통제 및 구조조정에 힘입어 뚜렷하게 개선되었음.
 - 첨단기술과 장비공업의 생산이 가속화되었음.
 - 전자 및 통신설비제조업과 야금공업 등 4대 업종의 공업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41%에 도달, 공업증가율을 4.6% 포인트 유발함.
- 하반기 경제성장은 약간의 둔화를 보일 것이나 내수확대 조치의 점차적인 실행과 더불어 내수확대가 대외부분의 위축을 보완할 것인바, 당초 목표치인 7%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임.

2. 중국, 상반기 금융 안정 운영

- 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안정 통화정책에 힘입어 2001년 상반기 금융은 양호한 운영 상황을 유지하여 경제구조 조정과 국민경제의 지속 발전을 유력하게 지원함.

- 통화공급량의 안정 증가
 - 6월말 현재 M₂잔액은 전년동기대비 14.3% 증가한 14.8조 원, M₁잔액은 14.9% 증가한 5.5조 원임.

- 기업예금의 안정 증가 및 주민 저축예금의 빠른 증가
 -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잔액은 15.1% 증가한 13.5조 원, 기업의 예금잔액은 17.7% 증가한 4.8조 원, 주민저축잔액은 10.8% 증가한 7조원임.
 - 상반기 누계 예금액은 1.2조원으로 동기대비 15.1% 증가

-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
 -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잔액은 13.7% 증가한 10.7조 원, 그중 단기대출잔액은 6.5조 원, 중장기 대출잔액은 3.1조원임.
 - 상반기 누계 대출액은 7,152억 원

- 외환보유고 지속 증가 및 인민폐환율의 안정 유지
 - 6월말 현재 외환보유고 잔액은 1,808.4억 달러, 상반기 증가액은 152.6억 달러
 - 6월말 현재 미달러화에 대한 인민폐환율은 8.2770으로 안정세를 지속함.(***)